

# 봉침요법강좌

韓國蜂療保健研究會  
理事 金元淑

## 봉침(蜂針)과 치질(痔疾)

**치질(痔疾)**은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질병(疾病) 중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질병이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어, 나중에는 수술을 받는 중병(重病)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치질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고 유독 사람에게만 있는데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나 운전자나 술을 많이 먹는 중독자, 임신한 부인, 변비로 인하여 열창이 된 사람에게 많이 생기는 질병으로 되어 있다. 서양의학적(西洋醫學的)으로는 세균의 감염으로 이환(罹患)된다고 보고 있으나 동양의학적(東洋醫學的)으로 볼 때 간기능(肝機能)이 허하거나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이환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고전에 장부천착론(臟腑穿鑿論)에 보면 간(肝)과 대장(大腸)은 상통(相通)한다고 보았으며, 간(肝)은 근(筋)과 신경(神經)을 총괄(總括)한다고 하였으니 항문(肛門)은 근과 신경의 집결처(集結處)라 간기능이 허약하여 항문(肛門)의 괄약근(括約筋)이 이완되면 내용물(內容物)이 분비되어 항문 주위가 청결치 못하였을 때, 오랜 변비나 설사로 인하여 항문에 상처가 생기고, 그곳에 세균이 감염되어 생기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알콜 중독자(中毒者)나, 임신부(妊娠婦), 정신적(精神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무직(事務職), 또는 운전자(運轉者)에게 이환률(罹患率)이 높은 것은 간기능이 혹사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침(蜂針) 치료(治療)를 시술(施術)할 때에는 항문에 당치도 중요하지만 경락(經絡) 조절(調節)을 잘 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1. 치질(痔疾)의 종류(種類)

치질(痔疾)에는 치핵(痔核), 치루(痔漏), 치열(痔裂), 농양(膿瘍), 항문소양증(肛門瘙癢症) 등 여러 가지 질환(疾患)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一般的)으로 치핵(痔核)이 전체 치질(痔疾) 질환(疾患)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치핵(痔核)을 치질(痔疾)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다. 치질(痔疾)은 항문관(肛門管)의 정맥 혈관들이 충혈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늘어나서 덩어리를 이루어 생긴다.

치핵이 항문의 안쪽으로 생기면 내치핵(內痔核)(암치질)이고, 항문 바깥쪽에 생기면 외치핵(外痔核)(수치질)이라 한다. 즉 내치핵일 경우는 항문 속에 치핵이 생겨 외견상(外見上)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나 외치핵은 항문 외부에 닭의 벼슬처럼 넓적한 핵덩이나 혹은 앵두알 같은 덩어리가 몇 개씩 나와 있어서 식별하기가 용이하다. 내치핵은 큰 통증은 없으나 하복부가 묵직하며 밀이 빠지는 듯 기분 나쁜 통증이 있으며 선혈성 혈변을 동반한다.

외치핵은 항문 외부에 돌출되어 있어서 앉아 있기가 매우 불편하며, 건드리면 통증이 매우 심하다.

치루는 항문 직장 주위의 농양(膿瘍)이 스



스로 파괴되었을 때나 또는 수술 후 항문 주위에 발생한 만성의 종관이 생겨 주머니가 형성되어 마치 짜리같이 그곳에서 소리가 나는 수가 있다. 치루에도 내치루와 외치루가 있는데 봉침으로 치료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 II. 치질(痔疾)의 치료방법(治療方法)

치질의 치료법에 있어서 가장 손쉽고 용이한 것이 봉침치료인 것이다. 특히 외치질에 있어서 용이한 것은 환부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식별하기 용이하며 시술하기에도 어려움이 없다. 치료점은 발침한 봉침으로 치핵 중앙부와 항문 안쪽 치핵 근부에 2-3개 자침한 후, 발침하지 아니하고 귀가시키면 한 시간 후에 물이 흘러나와 내의를 적시는 수가 있다.

그러면 즉시 동통이 멎으며 환부가 적어지면서 당처의 시술로 4-5회 치료하면 100퍼센트 치료가 가능하며 재발도 거의 없이 완치된다. 그러나 내치질은 항문 속에 깊이 있어서 환부에 시술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흡각기로 환처를 뽑아낸 후에 외치와 같이 시술하고 경락치료도 겸하여 시술하여야 한다.

시술점은 출혈이 있기 때문에 폐경(肺經)의 극혈(?穴)인 공최(孔最), 척택, 중부, 간경의 장문, 기문, 대장경의 모혈인 천추, 임맥의 중완, 중극, 독맥의 장강, 백회, 방광경의 대장유, 방광유, 관원유 등의 혈에도 시술하여 경락의 허실을 살피 시술을 1개월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치루인데 치루는 봉침치료하기에 매우 어려운 질환이다. 앞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치질이 오래되어서 농양이 된 후 또는 수술을 잘못하여서 재발된

경우, 항문에 치질이 집을 짓고 들어 앉은 형상이다. 그래서 치료하기에 매우 어려우나 치료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100퍼센트 치료된다고 자신할 수도 없는 것이다. 치료방법은 치질과 같으나 좀더 강한 시술 방법이 필요하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

## III. 봉침치료 임상 예

필자가 치료하여 완치한 임상사례를 몇 가지만 기술하고자 한다.

◎ 25세 직장여성(미혼) - 은행에 근무하는 미모의 아가씨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치료를 받기 위해 내방하였다. 어머니는 봉침으로 치질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며 딸의 증세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변비로 인하여 열창이 있으며 배변시 통증이 심하며 과로하거나 생리 때가 되면 통증이 더욱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환자를 살펴보니 외치였으며 변비(便秘), 생리통(生理痛), 생리불순(生理不順), 요통(腰痛)도 수반하였다.

치질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적인 변비와 생리불순도 치료되어야만 완치될 것으로 생각되어 변비와 생리불순, 생리통, 요통도 치료해 주겠다 하니 깜짝 놀라며 그런 병도 치료되냐고 반문하였다. 질병이란 복합적인 원인에서 생기기 때문에 환자를 세심히 살펴서 인체의 기혈이 순환만 잘 되면 병은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다. 우선 환부에 발침한 봉침으로 4개를 시침하였고, 요통과 생리불순, 변비를 치료하기 위하여 배유혈인 신유, 지실, 대장유, 관원유, 요양관, 팔료혈, 족태음비경의 삼음교, 음능천, 태백,

족궐음간경의 태충, 여구, 곡천, 복부의 중극, 관원, 중완, 천추혈 등을 주2회 한달간 치료하니 치질은 물론 생리불순, 생리통, 요통, 변비까지 깨끗이 치료되어 지금은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둔 엄마가 되어 가끔 인사차 찾아와서는 고마움을 표하고 간다.

◎ 36세의 직장남자 -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건장한 청년인데 치질로 내방하였다. 호소를 들어보면 영업 사원으로서 손님 접대하는 일이 많아 항시 술을 먹어야 하고, 과중한 업무에 운전을 많이 하여 항상 피로에 시달리고, 술만 먹으면 설사를 자주 하고, 항문 출혈이 심하며 탈장이 되는 수도 있다고 한다.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다. 항문을 살펴보니 내치질이였다. 흡각기로 뽑아보니 여러개의 치핵이 발생했으며 출혈과 농양이 발생하였다. 우선 출혈과 농양을 없애기 위하여 직자법으로 3마리의 벌로 직자하고, 간기능을 돕기 위하여 대둔, 태충, 여구, 음곡, 곡천혈에 약자하였으며, 중극, 관원, 중완혈에 자침하여 원기를 도왔고, 공취, 척택, 대장유, 장강, 백회, 천추혈에 강자하였다. 주2회 3개월 치료로 완치하였다.

◎ 69세 남자 -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초췌한 노인 한분이 찾아와 내 병증 고쳐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이야기인즉 발병한지 10년이 넘었으며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3번이나 받았으나 낫지 아니하고 지금은 수술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한 일이었다. 이야기만 들어도 자신이 없었으나 환부를 살피는 순간 더욱 자신이 없었다. 치루에 탈장까지 겹쳐서 상당한 중증이었다. 찾아

오신 손님이 노인이고 오랜 병고에 시달려 절망한 상태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격으로 마지막 봉침이라도 맞아 보겠다는 일루의 희망을 걸고 찾아오신 손님에게 절망감을 드릴 수 없어 일단 안위를 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받으면 치료될 수 있다고 (사실은 자신이 없었다) 위안을 시켜 놓고 환부에 5마리의 벌을 직자하고 몸이 많이 쇠진하여 있기 때문에 비위경락을 보하고, 간경과 담경, 배유혈 등에 가볍게 산자하여 기혈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주고 2일 후에 오시라고 하였는데 다음날 또 왔다.

많이 편하다며 시술받기를 원해서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고쳐야겠다는 욕심에 이번에는 7마리를 직자하였다. 과한 자침으로 인하여 며칠간 몸살을 앓았다. 그후 계속해서 7마리에서 10마리씩 1주일에 2회 자침으로 환부에 놓고, 비위간담경락을 조절하고 신요, 지실, 대장유, 방광유, 삼초유, 요유, 장강, 승산, 천추, 관원, 족삼리, 백회 등 전신의 경락을 소통시키는 치료법을 구사하였다.

항문에는 봉침을 맞을 때마다 농양이 흘러나왔고 치핵이 차차 줄어들어 가는 것이 확연히 나타났다. 5개월쯤 되니까 항문의 형태가 조금씩 나아지며 농은 흐르지 않고 내치로만 조금 남아 있었다. 그 이후 일주일에 한번 때로는 이주일에 한번씩 비정기적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아 지금은 완치는 안되었으나 장거리 여행도 다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생활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